

U.S. Daily Briefing

문의 : 워싱턴무역관(seogil.chang@kotra.or.kr)

2023.06.23.(금) 제23-070호

◆ [Focus] 6월 말 기준 美 주요 기관별 2023년 미국 경제 전망

◆ [What's News]

- (반도체) 美 상무부, 반도체법 소재·장비 제조시설 지원기준 발표
- (무역협정) 미국-인도, WTO 6개 분쟁 종료에 합의, 전략적인 파트너십 강조
- (무역협정) 美 의회, 미-대만 무역 이니셔티브 협정 법안 통과 보류
- (입법동향) 美 상원, 의료 물품 자유무역협정 법안 발의

◆ [Top Headlines] 주요 언론사 오늘의 헤드라인

FOCUS

(경제전망) 6월 말 기준 美 주요 기관별 2023년 미국 경제 전망

1. 배경

-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6월 회의 결과, 현행 금리 동결 결정
 - 15개월간 10회 연속 금리 인상 행진 중단, 금리 5.0~5.25% 유지
 - 여전히 높은 물가와 양호한 고용동향을 들어 연내 최소 2회 추가 금리 인상 예고 ⇒ 연말까지 통화정책 유연성 확보 취지로 해석
 - 연준은 이번 금리 동결 결정과 함께 경제 전망치 수정 공시
 - 지난 3월 전망 대비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실업률, PCE 물가지수, 기준금리 상향 조정 등 지표 전망 업데이트
- 상반기 마감 임박, 현지 주요 기관들은 올해 전망치 속속 수정 발표
 - 연준의 경제 전망치 조정에 이어 최근 골드만삭스, 컨퍼런스보드, 딜로이트 등 개별 업계를 대표하는 기관 간에 엇갈린 경기 전망
 - 월가를 중심으로 올해 예상 밖에 경제 성장과 증시 호황 기대감 고조
 - △정부 부채 위기 모면 △고용시장 안정화 △민간 소비지출 증가 △부동산 경기 반등 등 미국 경제 지표 개선 흐름에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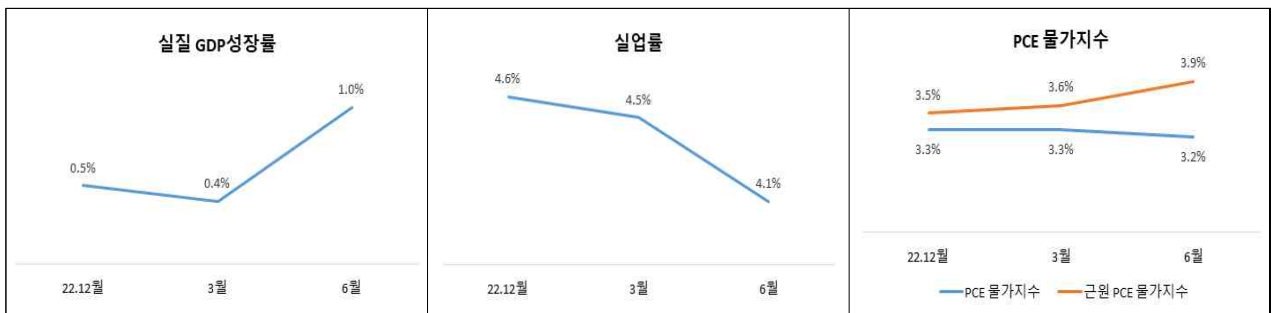
- 일부 기관은 미국 내 리세션과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으며, 성급한 경기 낙관론을 경계

2. 기관별 경제 전망

1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 이번 6월 경제 전망에서 올해 실질 GDP 성장률을 1.0%로 전망, 지난 3월 전망치 0.4%보다 무려 0.6% 포인트 높게 예측
 - 올해 실업률은 4.1%로 예상, 3월 전망치(4.5%) 대비 개선 전망
-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상승률 전망을 3.2%로 소폭 하향 (3월 전망 3.3%)
 - 가격변동이 큰 식품·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물가 상승률은 3.9%로 3월 전망(3.6%) 대비 상향 ⇒ 연준의 인플레이션 잔존 우려 반영

< 연준의 '23년 미국 경제 지표 전망 변화 >



[자료] 연방준비제도이사회

- 올해 말 기준금리를 3월 전망치 5.1%보다 높은 5.6%로 예측
 - FOMC 참여 18명 연준위원 중 9명이 5.5~5.75% 금리 수준에 동의
 - * 3월에는 10명의 연준위원이 5.0~5.25% 수준에 동의
 - 현지 경제지는 연말까지 0.25%씩 두 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 제기

< 연준의 적정 기준금리 평가 점도표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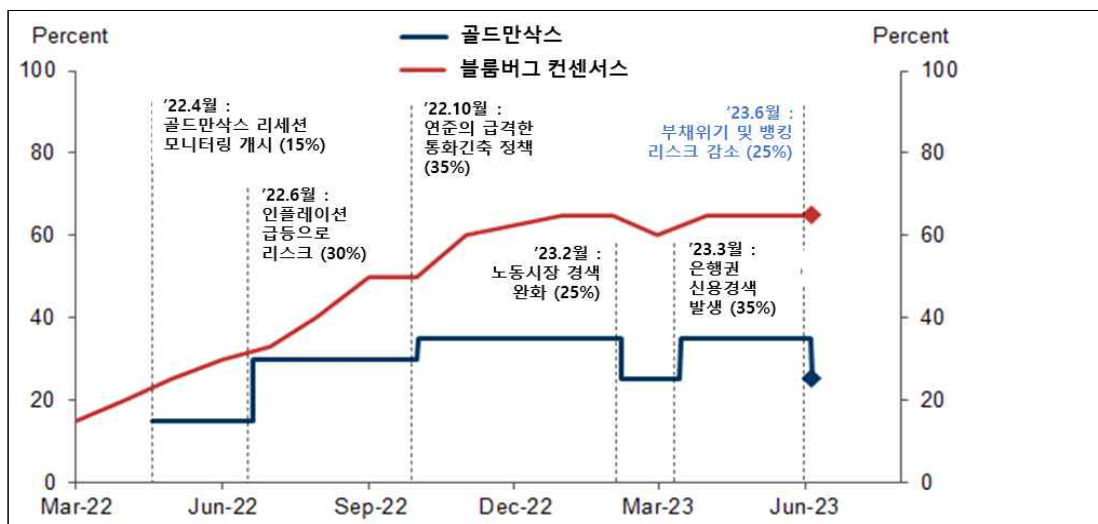


[자료] 연방준비제도이사회

2 골드만삭스 (Goldman Sachs)

- 골드만삭스는 6.6 보고서에서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을 1.8%로 상향 - 지난 3월 전망치 1.2%보다 0.6% 포인트 높게 예측하여, 민간 기관의 컨센서스와 연준의 전망치를 웃도는 수치로 주목받음.
- 12개월 내 미국 리세션 돌입 확률을 종전 35%에서 25%로 인하
 - (1) 미국 의회의 정부 부채 한도 인상 타결로 불확실성 제거, (2) 부실 지역 은행의 연쇄 도산 위험성 축소* 등을 근거로 제시
 - * △금융 경색의 GDP 감소 효과 저감 △예금인출 속도 둔화 △시중 대출 동향 안정화
 - 그 밖에도 미국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 증가 추세와 주택 시장 안정화 등의 영향으로 상당한 경기 부양 효과 발생 기대

< 골드만삭스 전망 추이, 12개월 내 미국 리세션 발생 확률 >



[자료] Goldman Sachs(6.6)

- 고용시장 과열 해소 조짐으로 7월 이후 연준 금리 인상 중단 전망
 - 최근 통계에서 노동 수급 불균형 완화 포착 ⇒ 물가 인상 속도 둔화 발생 ⇒ 연준 7월 1차례 금리 인상 후 동결 전망(5.12~5.5%)

3 컨퍼런스보드 (Conference Board)

- (GDP) 민간 산업계를 대표하여 컨퍼런스보드는 올해 실질 GDP 성장률을 1%로 예측하고, 올해 3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마이너스 경제 성장 전망
 - △인플레이션 지속 △연준의 통화 긴축 △은행권 위기 △정부 재정 지출 축소 △민간 소비 지출 조정 △기업 투자 축소 등 원인
- (소비) 민간 소비지출 증가를 이끌었던 서비스 소비가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민간 소비지출 감소* 예상
 - 급증했던 가계 저축 고갈(연말 무렵), 신규 일자리 감소로 임금 인상 축소, 학자금 대출 상환 재개 등이 소비심리 위축을 초래
 - * ('23.1분기) 3.8% ⇒ (2분기) 1.0% ⇒ (3분기) -1.7% ⇒ (4분기) -2.4%
- (투자) 금리 인상의 후발 효과로 민간 기업 투자 축소 가속
 - 민간 기업의 시설·재고 투자가 감소하고, 은행권 신용 경색으로 인해 상업용 및 산업 대출 여력 축소. '24년 가을까지 민간 투자 감소 추세가 이어질 전망
- (물가) 2분기 인플레이션 완화 가속화 예상. 하지만, 연준이 목표하는 2% 물가 상승률의 연내 도달은 어려울 전망
 - 하반기 들어 서비스 물가 및 주거 비용 하락으로 인플레이션 내림세 지속. 올해 4분기 PCE 물가지수 3.1%(전년 대비) 상승 예상
- (금리) 연준은 '24년 하반기까지 기준금리를 4%대로 내리고, 내년 연말에는 3%대 금리 인하 가능성 제기

< 컨퍼런스보드 분기별 경제 지표 전망 (전년 대비 연율 기준) >

(단위 %)	2023년				2024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실질 GDP	1.3	0.6	-1.2	-2.1	-0.9	1.8	2.3	2.3
실질 소비지출	3.8	1.0	-1.7	-2.4	-1.3	1.1	2.0	1.8
실업률	3.5	3.6	3.7	3.9	4.4	4.5	4.5	4.4
PCE 물가지수	4.9	3.9	3.5	3.1	2.6	2.3	2.1	2.0
근원 PCE 물가지수	4.7	4.3	3.8	3.2	2.5	2.3	2.1	2.0
기준금리(중간값)	4.875	5.125	5.375	5.375	5.375	4.625	4.125	3.875

[자료] 컨퍼런스보드 경제 전망(6월)

3 딜로이트 (Deloitte)

- (시나리오) 경제 전망 보고서(6.15)에서 3가지 시나리오별 경제 예측
 - (1) 베이스라인(60%) : △통화 긴축 지속 △유럽·중국 경기 저조 △높은 에너지 가격 △강달러 △가계 지출 확대 △부동산 침체 등 전제
 - (2) 인플레이션 재상승(20%) : △물가 상승률 재점화(6%대) △노동 시장 과열로 임금 상승 △연준 금리 인상 가속화 △국내 경제 활동은 상대적으로 강세 유지 등의 경우 상정
 - (3) 리세션 돌입(20%) : △통화 긴축이 경기 침체 촉발 △'24년 중반 까지 GDP -2.4% 성장 △실업률 5.5%로 상승 △연중 금리 인하 △'24년 하반기 경제 성장 전환
- (GDP) 올해 미국 실질 GDP 성장률은 60%의 확률(시나리오 1)로 1.4% 전망
 - 시나리오 2와 3의 경우 각각 0.8%, 1.2%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
- (소비) 고용시장의 안정적인 성장과 임금 상승이 국내 소비 지탱 기대
 - 가계가 이전의 저축 패턴으로 돌아감에 따라 지출이 소득 증가에 비해 저조 예상. 내구재 소비 감소, 서비스 지출 증가 추세 지속

- (노동) 노동력 부족 지속으로 고용 감소에도 실업률은 낮게 유지 전망
 - 중장기적으로 노동참여율은 연간 0.2% 증가에 그쳐 국내 노동력 부족 현상이 고착화할 우려 제기

< 딜로이트 시나리오별 미국 경제 지표 전망 (전년 대비) >

(단위 %)	(1) 베이스라인			(2) 인플레이 재상승			(3) 리세션 돌입		
	2023	2024	2025	2023	2024	2025	2023	2024	2025
실질 GDP	1.4	1.3	1.7	0.8	0.9	2.0	1.2	-1.5	2.7
실질 소비지출	2.3	2.2	1.6	1.5	1.5	1.8	1.9	0.6	1.4
물가(CPI)	4.6	3.3	2.3	5.4	6.1	6.0	3.9	1.8	4.1
실업률	3.8	4.0	3.8	3.9	4.2	3.8	3.9	5.4	5.1
기준금리(중간값)	4.95	5.06	4.13	4.10	5.55	6.00	2.90	1.00	1.29

[자료] Deloitte 경제 전망(6월)

- 작성자 | 워싱턴무역관 이정민
- 자료원 | 연준 경제 전망(6월), 골드만삭스(6월), 컨퍼런스보드(6월), 딜로이트(6월)

□ **(반도체) 美 상무부, 반도체법 소재·장비 제조시설 지원기준 발표**

- (개요) 美 상무부, 3억 달러 이상 반도체 소재·장비 제조시설 지원기준 발표(6.23)
 - 美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은 △반도체 제조시설, △반도체 소재·장비 제조시설, △R&D 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으로 구성
 - 지난 2월 △반도체 제조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계획이 발표되었으며, 이번에는 3억 달러 이상의 △소재·장비 제조시설 및 웨이퍼 제조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 계획이 공고
 - * 3억 달러 미만 반도체 소재·장비 및 R&D 시설 투자 지원기준은 하반기 발표 예정
- (상세) 9월 1일부터 사전 신청 개시, 선정 시 투자액의 5~15% 지원
 - 3억 달러 이상 소재·장비 제조시설 및 웨이퍼 제조시설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의 세부 지원계획은 지난 2월 반도체 제조시설 절차와 동일, 다섯 개 단계*를 거쳐 신청
 - * Statement of interest, Pre-application, Full application, Due diligence, and Award preparation and Issuance
 - 이후 미국 내 경제·국가안보, 상업적 타당성, 재무상태, 투자이행 역량, 인력 개발 및 그 외 파급효과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
 - 9월 1일 사전 신청 또는 10월 23일 부터 본 신청을 통해 재정 인센티브 지원 여부 및 규모(투자액의 5~15% 직접 지원)를 협의
- (기타) 美 상무부, 반도체 공급망 투자에 대한 성공을 위한 비전 발표
 - (1) 취약지점 위험 관리 등 반도체 공급망 복원력 강화
 - (2) 미국 주요 제조장비 및 소재 공급 업체 지원 등 리더십 강화 노력
 - (3) 반도체 실리콘 웨이퍼 제조시설(FAB) 클러스터 지원 등

▪ 작성자	워싱턴무역관 김준희
▪ 자료원	美 상무부(6.23), 폴리티코(6.23)

□ [무역협정] 미국-인도, WTO 6개 분쟁 종료에 합의 전략적인 파트너십 강조

- (개요) 미국과 인도, WTO 분쟁 6건 해결하기로 합의점 도달
 - 미 무역대표부(USTR)는 성명(6.22)에서 미국과 인도가 세계무역기구(WTO)에 계류 중인 6개 통상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
 - 주요 합의 내용은 인도가 미국의 232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에 대응한 보복관세를 철폐하고, 양국이 상호 WTO에 제소한 6건의 분쟁을 종료
- (상세) 미국-인도, 양국 간의 경제 및 무역 관계 강화할 방법 모색
 - USTR 대표 캐서린 타이는 성명에서 이번 모디 총리의 국민 방문은 양국 간 협력의 중요성과 경제와 무역 관계를 심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힘
 - 이번 합의에서 인도는 자국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미국 232조 관세에 대응하여 병아리콩, 렌즈콩, 호두, 사과, 봉산, 진단 시약 등 미국 제품에 부과된 보복관세를 철폐하기로 동의함
 - * 미국이 부과 중인 232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는 존치 조건
 - 추가로 종료될 분쟁으로는 인도가 제기한 두 건 (△특정 탄소 열연 강판에 대한 상계 관세, △재생 에너지 부문 특정 조치)와 미국이 제기한 두 건 (△수출 관련 조치, △태양 전지 및 모듈에 대한 특정 조치) 포함
- (기타) 백악관은 그 밖에 반도체 및 핵심 광물 협력 합의 내용 공개
 - 마이크론 및 기타 미국 기업들이 인도에 신규 투자를 발표했으며 양국이 반도체 공급망과 기타 기술 중심 문제 관련 협력 심화를 촉구한다고 발표 (6.22)
 - 또한 인도는 미 국무부가 주도하는 광물 보안 파트너십(Minerals Security Partnership)에 가입할 예정

▪ 작성자	워싱턴무역관 한유림
▪ 자료원	백악관(6.22), USTR(6.22), 인사이드트레이드(6.22)

□ [무역협정] 美 의회, 미-대만 무역 이니셔티브 협정 법안 통과 보류

- (개요) 하원 통과된 무역협정 법안, 상원에서는 의회 통과 보류
 - 대만과의 무역협정에서 의회의 권한을 강조하는 미-대만 무역 이니셔티브 협정 법안이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지만, 상원에서는 톰 코튼 상원의원의 반대표로 만장일치 승인이 좌절, 법안 통과 연기
- (상세) 현지 언론은 의회의 휴회 기간(7.10) 이후 상원 통과 전망
 - 론 와이든 상원 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무역에서 의회의 역할을 명확히 하며, 행정부에 투명성과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임을 강조
 - 이 법안은 하원에서 구두 투표로 만장일치 통과(6.21)되었으며 이후 상원에서 통과 보류(6.22), 2주간의 상원 휴회 기간 이후 표결 예정으로 현지 언론 인사이드트레이드는 무난한 통과 전망
 - 코튼 의원은 절차상의 이유로, 75p 분량의 복잡한 협정문과 14p 분량의 법안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 없이 통과되는 것을 우려한다며 반대표 행사
 - 법안은 양국 간 협정을 공식적으로 승인하고 행정부가 대만과의 후속 협상에서 따라야 할 절차를 제시하는 내용 등 의회의 협상 권한 강조
 - 또한, USTR이 협상 내용을 대만과 공유하기 전에 의회에 제출하고, 최종 협상 결과 외부 공개 전 의원들이 열람토록 하는 내용 포함
- (참고) 의회, 행정부의 무역협정 약식 처리에 지속적인 불만 표출
 - 하원 세입 위원장 제이슨 스미스 의원은 성명에서 의회가 무역협정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주체이며, 행정부가 IPEF와 같이 의회의 승인 없이 외국과 무역협정을 이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저지할 것임을 밝힘

▪ 작성자 | 워싱턴무역관 박소현

▪ 자료원 | 인사이드트레이드(1)([6.22](#)), 인사이드트레이드(2)([6.22](#))

□ [입법동향] 美 상원, 의료 물품 자유무역협정 법안 발의

- (개요) 상원, 의료 공급망 안정성법(Medical Supply Chain Resiliency Act) 발의(6.22)
 - 의료 물품·서비스의 미국 및 전세계로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미 대통령에게 “신뢰할 수 있는 국가”*와의 무역협상 개시 권한 부여
 - * 공중보건 위기에도 의료 물품 무역을 개방하는 등 국제 보건 안보에 기여하는 국가
 - 해당 법안은 톰 카퍼 의원과 톰 티리스 의원에 의해 초당적으로 발의, 미 상의나 국가대외무역위원회는 해당 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
- (상세) 미래 공중보건 위기 대응을 위해 의료 물품 공급망 안정성 제고 추진
 - 협정*국과 핵심 의료 물품에 대해 상호 관세, 수입쿼터 외 규제 등 비관세장벽 철폐, 정부 조달 시장 접근성 제고 등을 추진하고
 - * Trusted Trade Partner Agreement : 신뢰할 수 있는 무역 동반자 협정
 - 그 외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제조 규격 등 규제 협력과 민·관 연구개발 협력 등으로 무역·투자를 원활화, 위기에서의 공급망 안정성 제고
 - 단, 관세 인하·철폐 등은 양원 및 USITC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조항 등 협상 과정에서의 의회 보고 의무 명기
 - * 미 행정부와 의회는 최근 IPEF를 비롯한 시장접근성 완화 조항이 없는 무역협정이 의회 승인 대상인지에 대해 이견이 있음
- (반응) 미국의 의료 물품 공급망 취약성을 보완할 법안으로 평가
 - 카퍼 의원은 “공급망 복원으로 미래 공중보건 위기에 사전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 평했으며, 티리스 의원은 핵심적인 의료 물품에 대한 미국의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성명 발표
 - 미 상의는 이 법안이 의료 물품·서비스 공급망 안정성 제고뿐만 아니라 미국 및 동맹국의 제조업을 진흥시킬 것이라며 환영
 - 국가대외무역위원회는 해당 법안이 의료 공급망 안보 뿐만 아니라 혁신, 일자리 창출 등에서 무역협상의 중요성을 공고히 했다고 찬사

■ 작성자 | 워싱턴무역관 장석일

■ 자료원 | 톰 카퍼 의원실(6.22), 폴리티코(6.22), 인사이드트레이드(6.22) 등

Top Headlines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The Wall Street Journal	<p>Yellen Says More Bank Mergers Likely This Year (옐런 “연 내 은행들의 추가적인 합병 있을 것”)</p> <p>옐런 재무장관, 최근 사태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비용 증가가 추가적인 인수합병을 촉발시킬 것으로 전망. 단, 금융산업에 대한 위기로 번지진 않을 것이라 예측</p>
The Washington Post	<p>New video undercuts claim Twitter censored pro-Trump views before Jan. 6 (“트위터는 1월 6일 이전에 친트럼프 메시지를 검열하지 않았다”)</p> <p>'21년 1월 5일, 트위터 내부통제 위원회 화상회의 내용 유출. 충격 등을 예고한 트윗을 삭제하지 않아. 보수진영의 트위터의 반트럼프 행보에 대한 의혹 반박</p>
The New York Times	<p>Going Abroad, Modi Receives a Gift for Image-Building at Home (순방에서 이미지 메이킹 재료를 얻어간 모디 총리)</p> <p>인도 총선 및 재신임을 앞두고 모디 총리는 순방을 통해 지지세를 규합. 현 세계의 지정학적 추세로 인한 인도의 부각을 자신의 업적으로 현명하게 치환</p>
CNN	<p>McCarthy huddles with House Freedom Caucus and urges consensus and compromise ahead of major spending fights (매카시, 예산법안 심의에 앞서 프리덤 코커스와 회동)</p> <p>2주간의 휴회를 앞두고 매카시 의장은 프리덤 코커스 등과 만나 다음 달부터 시작될 예산법안 심의 관련 내부 단속 시작. 휴회 기간에도 회동 진행 예정</p>

* 미국 동부시간 6월 23일 15시 기준

Notice

주요 경제·통상 일정

* 주요 경제통상 일정은 매주 화요일 공개됩니다

□ 워싱턴무역관 공지사항

◆ 주요 경제통상 현안을 빠르게, **경제통상리포트** (과거 리포트 : [☞해드림 글로벌이슈모니터링☞](#))

발간번호	제목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발간시기
US23-18	RE100, 회원사 재생에너지 전환 성과 분석	2023.06월
US23-17	IPEF 5월 장관회의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2023.06월
US23-16	美 화석연료 발전소 배출기준 강화안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2023.05월
US23-15	6가지 통계로 보는 미 외국인직접투자(FDI) 동향 및 시사점	2023.05월
US23-14	미국 반도체 R&D 지원 정책 방향	2023.04월
US23-13	미 환경보호청(EPA) 차량 배출규제 강화안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2023.04월
US23-12	미국 EV 핵심 광물 공급망 현황 및 현지 기관 정책 제안	2023.04월
US23-11	바이든 행정부의 제조업 탈탄소화 지원정책 현황	2023.03월

◆ 경제통상 이슈에 대한 워싱턴무역관 심층 르포, **기획조사** (과거 보고서 : [☞해드림 심층보고서☞](#))

발간번호	제목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발간시기
US22-기획7	미국의 바이오제약 산업 육성 정책과 시사점	2023.01월
US22-기획6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본 미국 에너지기후변화 정책 심층 분석 및 시사점	2022.12월
US22-기획5	2022년 미국 중간선거 결과 분석 및 시사점	2022.12월
US22-기획4	미국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 동향 및 시사점	2022.11월

◆ 전문가가 읽어주는 경제통상 이슈, **코트라 인터뷰 시리즈** (과거 인터뷰 : [☞유튜브 KOTRA TV☞](#))

인터뷰번호	제목	바로가기
코인시-13 (2023.6.27)	 <p>전 미국 국방부 안전 차관보 '앤디 스티어머' 인터뷰 경제 안보 관점에서 본 글로벌 공급망 재편!</p>	COMING SOON
코인시-12 (2023.5.31)	 <p>GSK 백신 전문가 '민지영' 박사 인터뷰 포스트 팬데믹에 대응하는 백신 개발 R&D의 중요성!</p>	